

동감한국 행사 축하 메시지

2007년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동감한국(動感韓國) 행사가 중국 북경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지금 명실상부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교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교역과 투자, 인적교류에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머지않아 무역 규모 2천억 달러, 인적 교류 1천만 명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두 나라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양국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협력과 공존의 미래를 열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감지중국(感知中國)에 이은 이번 동감한국 행사는 이러한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치·경제·학술·IT·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의 큰 성공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